'인왕제색도'에 꽃이 피고 나비가 날고…

G20 회의장에 깔리는 '미디어 아트'

명화 재해석한 이이남씨
만찬장·숙소 등 설치
'아이패드 작품'도 배포

미디어아티스트 이이남씨의 작품이 서울 G20 정상회의를 물들인다.

오는 11~12일 서울시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장과 각국 정상 및 관계자들의 숙소인 코엑스 파크 하얏트 서울 객실 등 10여 곳에 그의 작품이 전시된다.

그는 고전 작품을 LCD 모니터 속에 넣은 뒤 원래의 그림이 움직이고, 주변에는 눈이 내리게 하는 등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한 실험 정신을 높게 평가받고 있는 작가다.

디지털 애니메이션 등 첨단 테크놀로지를 활용해 인왕제색도에서 꽃이 피고, 나비와 새가 날아들며 흰 눈까지 소복소복 내리는 환상적인 작품을 만들어 내고 있다.

먼저, 각국 정상들이 참여하는 국립중앙박물관 환영만찬장에 그의 작품 '매화초옥도' '달 항아리 풍경'이 설치된다.

메인 행사라고 할 수 있는 코엑스 회의장에서도 '정선 박연폭포' '월만수만도' 등을 선보이고, 워커힐 호텔 정상회의장는 '디지털 8폭 병풍'이 각국 정상들을 맞는다.

또 각국 정상과 관계자들에게 한국을 알리기 위해 배포되는 아이패드에는 그의 작품 '금강전도'가 담겨있고, 파크 하얏트 호텔 객실 185곳의 모든 TV에도 '묵죽도' '모네의 수련' 등의 작품이 실시간 상영된다.

이번 정상회의 공식 행사이며 첨단기술과 지식을 결합한 신개념 지식콘서트인 테크플러스 포럼에도 '인왕제색도' '모나리자' '고흐의 자화상' '그곳에 가고 싶다' 등의 작품을 설치한다.

이 밖에 재무장관들이 참여하는 경주회의와 광주회의에서도 에 디지털 병풍을 선보이고, 밖에 정상회의를 기념해 열리는 한국공예진흥원 행사에도 2점을, 강남역 미디어 폴 전시에도 1점을 각각 출품했다.

이씨는 조선대 미술대학과 대학원, 연세대 영상대학원 출신으로 '아트콜른 2008' 한국 작가로 선정됐다. 지난해 미국 스미소니언 미술관 한국관 개관 기념 초대전, 독일의 미디어 아트 전시장인 ZKM에서 전시회를 여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

미디어아티스트 이이남씨가 G20 정상회의에 참여하는 각국 정상들에게 배포할 아이패드에 담긴 미디어 작품을 들고 있는 모습(왼쪽)과 그가 디지털 기법으로 재해석한 인왕제색도.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김미숙 하나무용단' 세계로… 세계로…

11월 스페인 수교 60주년 기념 창작 '회·소' 무대에
12월 하와이 한인문화관 건립기금 마련 초청 공연

광주에서 활동하는 민간 한국무용 단체인 '김미숙 하나무용단'은 지역 그룹으로는 드물게 국내 뿐 아니라 해외 무대에도 자주 서며 문화 사절 역할을 해오고 있다.

지난 2007년 하와이 초청 공연을 시작으로, 일본 오사카(2007년), 쿠웨이트(2008), 필리핀(2008·2009년) 등 각국에서 한국 춤 고유의 멋을 전해온 김미숙 하나무용단이 11~12월 스페인과 미국 공연에 나선다.

지난 3일부터 스페인을 방문중인 무용단은 5일 마드리드 폴리데포티브 공연장에서 창작작품 '회·소'를 무대에 올린다. 이번 공연은 한국과 스페인 수교 60주년을 기념하는 무대로 양국은 올 한 해 과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바르셀로나현대미술관 소장품전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특별 프로그램을 진행중이다.

풍년과 만복을 기원했던 한가위 강강술래를 모티브로 한 '회·소'는 지난 2007년 열린 제16회 전국무용제에서 대통령상과 연기상을 수상했던 작품으로 이번 공연에는 모두 25명의 단원들이 출연한다.

12월에는 하와이 초청공연에 나선다. 지난 2007년 하와이 한인회 초청을 받아 하와이 이민 100주년 기념 초청 공연을 다녀왔던 무용단은 당시의 인연으로 다시 하와이를 찾는다. 이번 무대는 특히 이민 역사 100년을 이어온 한인 동포들이 우리 문화를 유지 보존하고 한국의 얼을 지키기 위해 추진중인 '하와이 한인문화관' 건립기금 마련에 힘을 보태는 무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무용단은 12월 9일 닐 블레스텔센터 콘서트 홀에서 신작 '꽃처럼 하얀'을 공연한다. 이번 무대는 하나무용단 소속 13~15세 주니어 단원들이 주축을 이루며 전국 최고 권위의 무용 콩쿠르로 불리는 제40회 동아 무용콩쿠르에서 금상을 수상한 광주예고 김하서양도 함께 무대에 오른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피아니스트 조현영이 연주한 베토벤·모차르트의 변주곡

9일 문예회관 소극장

피아니스트 조현영 독주회가 오는 9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주제와 변주, 그리고 변화'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연주회는 베토벤, 모차르트 등 다양한 작곡가의 변주곡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짰다.

레퍼토리는 모차르트의 '사르티르링 오페라 '어무지리'의 아리아 '어린양처럼'에 의한 8개의 변주곡', 베토벤의 '영국 국가에 의한 7개의 변주곡'이다.

올해로 탄생 200주년을 맞은 슈만의 '알레그로 작품 8'과 '교향적 연습곡 작품 13'도 들려준다.

전남대를 거쳐 독일 쾰른 국립음대 석사, 라이프치히 국립음대 박사 과정을 마친 조씨는 한독 수교 125주년 기념 예술의 전당 그랜드 피아노 콘서트, 벨기에 대사관 주최 2010 유로아시아챔버 페스티벌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무대에서 공연했다.

전남대 강사를 역임했으며 현재 순천대·광주대·광주예고에 출강중이다. 문의 017-331-683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인터넷서점 시장점유율 첫 30% 돌파

작년 8938억 매출 32.8%… 성인 독서량은 10.9권

지난해 국내 도서시장에서 인터넷 서점의 매출 비중이 30%를 돌파했다.

또 지난해 우리나라 성인의 독서량은 일반도서의 경우 연간 10.9권이었으며 전체 국민의 일반도서 월평균 구입비는 1만7000원으로 조사됐다.

4일 대한출판문화협회가 펴낸 '2010 한국출판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도서시장(2조 7244억원 추정)에서 인터넷 서점의 매출은 8938억원을 기록, 전체 매출의 32.8%를 차지했다.

2002년만 해도 9.7%에 불과하던 인터넷 서점의 매출 비중은 2006년 24.2%로 처음으로 20%를 넘어선 데 이어 지난해 28.1%를 기록하는 등 매년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인터넷 서점 상위 5개사의 매출액도 평균 15.7% 증가했다. 특히 업계 1위인 예스24는 3669억원의 매출을 올려 전년 대비 22.5%의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반면 전국 주요 도시의 오프라인 서점 수는 2005년 2103개에서 지난해에는 825개로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출판사 수는 2000년 1659개에서 지난해에는 3만5191개로 3만개를 돌파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실적이 없었던 출판사가 3만2289개로 전체의 91.8%에 달했다.

또 출판계의 불황이 이어지면서 일반도서(만화 포함)의 신간 발행 종수도 지난해 42만191종으로 전년보다 2.1% 감소했다.

/연합뉴스

그리움 깊어가는 가을밤 시 한편 어때요

'시민과 함께하는 시낭송회' 8일 영상예술센터

광주시낭송가회(회장 이미영)가 오는 8일 오후 7시 광주영상예술센터(옛 KBS광주총국)에서 '제11회 빛고을 시민과 함께하는 시낭송회'를 연다.

따뜻한 사람, 그리움이 깊어가는 가을밤 '고운 시 맑은 낭송, 시향 가득한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시낭송회에는 이기환씨 등 회원들이 '산에게 1' 등 아름다운 시를 낭송한다.

홍영씨의 대금 연주, 이자영씨의 플루트 연주와 최여주씨의 바이올린 연주도 함께 할 예정이다.

박행자·장진규·손덕순·이슬아·정영숙·방영남·김정순·이미영·이숙자·김혜경·김혁순씨가 나서 시를 낭송한다. 문의 010-3666-3088.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